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벧전 1:6~7)

In this you greatly rejoice,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if need be, you have been grieved by various trials, that the genuineness of your faith, being much more precious than gold that perishes, though it is tested by fire, may be found to praise, honor, and glory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Pe 1:6~7)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찾아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출 14:1~9).

- 2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나요(잠 30:4, 욥 28:25~26)?

- 3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친 곳의 지형, 홍해 해저 속의 애굽 군대 유물 발견 등).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봅시다.

- 4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나 또는 우리 가족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77:1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이

시 135: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화

시 136:13~1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수

시 136:15~1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목

잠 30: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금

사 63: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토

마 8:2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주를 찬양하세

몇 년 전 한 젊은이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기사를 읽다가 감동이 되어 갑자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큰 기적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그때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기사를 읽고서 감동이 되어 ‘할렐루야 큰 기적을 베푸셨네’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자넨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홍해는 깊이가 불과 몇 인치밖에 안되는 늪이었다네.”

이런 반응을 제시하고 난 신학자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을 혼동과 실망에 빠지게 해 놓고는 다시 자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뒤에서 다시 할렐루야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아해진 이 신학자는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또 왜 그러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읽은 기사에는 하나님께서 몇 인치밖에 안되는 얇은 그 물 속에 온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질문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지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전 6:8~11)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괴악한 음행죄와 서로 다투고 속이며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이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생활 속에서도 차차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은 구주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생활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구원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씀처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구원 받은 생명이 심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의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라고 하시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어도 불의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근본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불의를 계속적으로 행한다면, 구원 받지 못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약 2:18)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약 2:26).

앞에 인용한 고린도전서 6장 8~11절은 결국, 너희가 본래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는 여러 죄 속에 있다가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구속(救贖)함을 받은 사람의 행실이겠느냐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생명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해야 합니다(고후 13:5).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롬 8:14).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써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